1. **나는 누구인가 (살아온 궤적)**

저는 공상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변화를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학창 시절엔, 학업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와 압박으로 공부에 전념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시절 속에서 저는 인내심과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항상 새로운 변화를 주면서 제 사고가 굳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1.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재미있는 놀이나 게임을 보면 그것을 혼자 머릿속으로 재구성해보면서 새로운 놀이를 상상해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저는 무언가를 학습하고 그 원리를 파악하여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수학을 좋아하고, 게임도 주로 머리를 써야하는 퍼즐 게임 류를 좋아합니다. 또한, 저는 제가 직접 만든 컨텐츠나 혼자 보기 아까운 유익한 컨텐츠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 반응을 보면서 뿌듯함과 만족감을 얻습니다.

1.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구상하고 기획한 어떤 규모 있는 서비스나 게임을 직접 만들어 출시해보고 싶습니다.

1. **나는 취업을 할 것인가? 창업을 할 것인가?**

우선 저는 취업을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능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경험을 쌓고, 개인 역랑을 빠르게 키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회사에 다니는 동안 혼자서 만들어보고 싶었던 서비스를 개인 프로젝트를 통해 틈틈이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만일, 이렇게 만든 서비스가 생각보다 잘 되거나 시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들면, 적절한 시기에 창업을 해보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 **10년 후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크게 2가지 모습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유망한 IT 기업의 팀장이 되어 후배들을 리드하는 개발자의 모습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제가 직접 만든 여러 소규모의 서비스를 혼자 운영하면서 적절한 수입과 재미를 얻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IT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를 창업하여 바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제가 아직 창업을 잘 모르고, 창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에, 지금까진 전자의 모습이 제 10년 후의 모습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모의창업기획및실습’ 수업을 통해, 창업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앎으로써, 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계기로 삼고 싶습니다.

1. **10년 후 나의 명함**

